제201회 중앙종회 인사말

전국 각지에서 한국불교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쉼 없이 정진하고 계신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의 차디찬 겨울이 어느새 가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듯이 우리 종단도 감동과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종단은 종단 역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고 있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중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약 100여명이 넘는 사부대중이 참여하여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매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공사 시작 초기에는 대중공사를 우려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지난 두 번의 대중공사에 직접 참여한 사부대중 모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라는 결론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승가와 재가, 그리고 지위 고하를 떠나 사부대중이 주어진 의제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제201회 중앙종회에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불기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신도시 및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신도시 포교라는 종단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불기255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해 중앙종무기관의 살림살이를 결산하기 위함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의 건은 법인등록 마감에 따른 권리

제한 조치를 7월 말까지 유예함으로써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선학원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서는 선학원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앙종회의원 여러분!
현재 종단은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며, 어려운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종단은 이러한 기조속에서 실질적 성취를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회에서 '종교시설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성화 할 수 있다'고 국가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국유림의 이용문제로 제약을 받던 많은 사찰들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에 의원스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종무기관이 종도들과 소통하는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곳이 바로 중앙종회입니다. 종단의 각종 현안 문제를 비롯하여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모아진 결론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총무원 집행부는 중앙종회와 상시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여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망초심 초심불망(勿忘初心 初心不忘)이라 했습니다. 매사를 처음 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라는 말입니다. 즉, 첫술에 배불러 하지 않고 시작이 반인 것처럼 오로지 매일매일 초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길에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과 늘 함

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3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